



일러스트레이터



김정현 | 동화작가
(kimskorean@naver.com)

하천과 동화

갈대샘의 전설

옛날 옛날에 순돌이가 사는 마을 앞에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.

이 시내는 여름철이면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. 놀이터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마을 아이들이 곧잘 수영하면서 물장구치고 놀아대서 하는 말입니다.

시냇물은 깊지도 않고 깨끗하여 아이들한테는 안전하게 놀기가 참 좋았습니다.

시냇가는 갈대숲도 있었습니다. 이 때문인지 물오리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. 그 속에서 개구리 울음소리도 나는 것을 듣습니다.

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. 몹시 가뭄이 들었습니다.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을 우물들도 마를 지경이었습니다. 순돌이네 집에도 우물이 있었는데 어느 다른 집보다 더 많이 말라져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

큰 일이었습니다. 우물이 바짝 마른다면 밥을 해 먹을 물이 없어 큰 일이었습니다. 그보다도 목마를 때 시원하게 들이킬 물이 없어서 걱정이었습니다. 그때는 오늘날처럼 가게에서 생수를 병에다 넣고 파는 일이 없었습니다.

이러한 가뭄에서 잘 산다는 부잣집에서는 우물을 깊이 파서 다른 집의 우물보다 텅 말라 있어서 먹는 식수 큰 걱정은



없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잣집에 먹는 물동냥하러 가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부잣집은 인색했습니다. 먹는 물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.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함부로 물을 떠가게 했다가는 자기네 우물이 말라버린다는 이유를 대며 거절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.

어느 날이었습니다.

순돌이는 바짝 말라있는 시내로 갔습니다. 주위 갈대숲도 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. 푸른 갈대가 누렇게 변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 순돌이는 아버지가 마실 물을 걱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시냇가로 와 본 것이었습니다.

순돌이는 시내를 보고 울상을 지었습니다. 언제 저 시내가 흐르는 물이 있어서 풍덩 물에 뛰어들어 물장구치며 놀 수 있을까하는 생각보다 아버지의 물 걱정이 생각나서 울상을 지은 것입니다.

순돌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. 어디선가 “야야”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

“?”

순돌이는 주위를 둘러 봤습니다. 또 부르는 소리가났습니다. 그 소리는 갈대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.

“집에 가서 아빠더러 우리가 있는 땅 밑을 파 보라 해. 그럼 물을 볼 것이다.”

어느 갈대가 한 말인지 여럿 갈대가 모여 있는 숲에서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 왔습니다.

순돌이는 갈대 숲속에 사람이 있나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고개를 가우뚱하며 돌아서려 할 때 뒤에서 진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

“너 거기서 뭐하니?”

순돌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.

“물도 한 방울도 없는데 뭐 하러 왔다. 더운데 나돌아 다녔다간 목이 탄다. 어서 집에 들어가라.”

순돌이는 아까 갈대숲에서 들려왔던 말을 아버지에게 했습니다.

“아빠, 누가 저 갈대 밑을 파 보라 해.”

“왜?”

“파면 물이 나온다 해.”

“뭐라구?”

순돌이 아버지는 의아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.

“누가 그랬어?”

순돌이는 이 말에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.

“갈대가 말했어!”

“너 날 놀리니?”

순돌이 아빠는 씩 웃으며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.

“참말이야!”

순돌이의 표정은 참다웠습니다. 그러자 순돌이의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순돌이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

“그래, 네 말 믿어보자. 누가 말했건 저 밭을 파보면 알 것 아니냐. 그렇잖아도 이 개울 어딘가에 물이 좀 나오는 데가 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 물 걱정은 덜 할 것 같구나.”

다음날 순돌이의 아버지는 땅을 팔 연장들을 챙겨 시내로 나가 갈대숲 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. 그 다음날도 계속 파 나갔습니다.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.

더러는 저 사람이 미친 짓을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.

“저기에 뭐가 나온다고 저 고생인가……”

순돌이 아버지는 사흘 동안 봤을 때 판 바닥은 물기가 보였습니다. 판 깊이는 한 사람의 키만큼 되었습니다.

나흘째 파기 시작했을 때 판 밑 사방에서 물이 고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.

순돌이 아버지는 외쳤습니다.

“야, 물이다!”

그 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순돌이 아빠의 일을 거들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. 좀 더 깊이 판 후로 우물 밑바닥부터 돌로 빙 둘러서 축대를 쌓아 우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우물 이름을 <순돌이 샘>이라 붙였습니다.

그러나 순돌이 아버지는 다른 이름을 하자고 말하였습니다. 그것은 「갈대샘」이란 이름이었습니다. 그 이름을 붙이는 데는 갈대가 순돌이한테 가르쳐줘서 생긴 샘이 된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.

갈대샘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우물이 되었습니다.

이후로 갈대샘은 아무리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 걱정은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.

